

격변하는 原油情勢

-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

지난 6월 25일부터 유고슬라비아의 브리오니섬에서 열린 OPEC 총회는 유가안정을 위한 산유할당량 합의에 실패한 채 30일 폐막되었다.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은 당분간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최근 日本經濟新聞에 연재된 석유정세에 대한 분석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1. 公式價格不在

지난 해 12월초 石油收入 감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한 OPEC (石油輸出國機構) 13개국이 제76회 총회에서 「적정한 시장점유율의 확보·방위」를 결의한 이후 국제원유 가격은 대 폭락을 보였다. 指標原油로 일컬어지는 WTI (美國西部 텍사스産 中質油)는 지난 해 11월 배럴당 31달러에서 지난 4월초에는 10달러선으로 하락함으로써 약 4개월만에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후 국제석유시황은 다소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단순히 가격수준뿐만 아니라, 原油를 둘러싼 국제석유정세는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油價支持로 돌아선 대소비국

지난 4월초 부시 美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등 페르시아灣岸 산유국을 순방, 원유가격의 하락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마니石油相이 日本을 방문, 나카소네수상, 와다나베通産相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지난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때 OPEC가 대폭적으로 석유가격을 인상한 것은 오류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아마니石油相은 최근의 국제원유가격 하락은 앞으로의 안정공급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東京서미트(선진국정상회담)에서

석유문제를 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와다나베 通産相은 지난 4월말 원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英國, 사우디아라비아등 대산유국을 방문했다.

지난 해 12월의 OPEC 총회 직후 뉴욕 원유선물시장에서의 WTI先物거래량은 한때 하루에 6천만배럴을 넘어서는 공전의 기록을 세웠다. 평소 하루거래량이 44만 배럴 정도이던 WTI가 전세계의 하루 산유량 5천만배럴을 넘는 거래량을 기록한 것이다. 그후에도 WTI의 先物거래량은 연일 2천만배럴, 때로는 4천만배럴을 넘어서 中東 원유에 대신하는 가격지표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

(2) 連鎖去來의 파탄

80년대에 들어 원유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제품시황의 변동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유회사들은 수급과 가격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北海産 브렌트原油는 대소비자인 북서유럽에 가까워서 수입하여 정제하기까지의 기간이 짧다. 게다가 英國의 가격변동에 탄력적이어서 현물시장에서의 수요는 늘어갔다. 그리하여 점차 리스크헷지와 투기를 위해 때로는 現物の授受를 수반하지 않고 단기간에 수신회社의 손을 거쳐 거래되는 일종의 先物市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연쇄거래이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시작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거래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회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회사들은 賣者중에서 현물의 뒷받침이 없다. 이른바 空賣라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했다. 연쇄거래를 통한 北海産 原油의 先物기능은 한때 마비되었다.

지난 해 8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네트백方式에 의한 원유판매계약의 체결을 시작했다. 네트백方式이란 석유제품의 스파트시황을 기준으로 정유회사에 정제비와 마진을 보충하고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60년 OPEC의 발족 이후 원유가격은 석유제품市況, 즉 원유의 최대 수요자인 정유회사의 수익상황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어 왔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대산유국조차 안정적인 收入증대를 위해서는 그동안 자행해온 수요자무시의 태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OPEC의 公式價格制度도 名實 共に 붕괴하게 되었다.

(3) 石油開發의욕의 저하

원유가격이 제품가격과 관계없이 高價安定되어 석유산업의 이익이 많을 때 석유회사의 투자의 중점은 탐광·생산부문에 집중되었다. 세계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슨의 예를 보면, 85년의 총투자액의 70%는 이들 부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서자 석유회사들은 우선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축소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굴착활동의 중지, 高コスト 소규모한계유전의 폐쇄, 高コスト 2차회수설비에 대한 투자삭감, 개발관련인력의 삭감등이다.

국제원유가격이 피크에 달했던 지난 81년에 美國에서는 한때 4천5백 基 이상의 굴착리그가 가동되었으나, 최근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가동중인 리그數도 감소, 지난 5월에는 8백 基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면서 美國휴스턴의 대굴착회사인 글로벌 머린社의 파산등 석유회사들의 경영난이 나타나고 있다. 産油州인 텍사스,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州 등에서는 실업증가와 조세감소에 따른 州 제정의 악화, 에너지관련은행의 경영악화로 발전되고 있다.

최근 석유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상류부문의 손실을 하류부문의 이익으로 메꾸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후

계속되어온 수익구조의 逆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石油經濟의 특징

석유정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석유경제의 본질적 특징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1) 거액의 투자

原油를 원료로 보느냐, 제품이 혼합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석유가 철강이나 非鐵金屬 등과 같은 기초자재와 크게 다른 점은 원료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量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석유제품은 원유 이상으로 위험물이다.

액체위험물을 수송·저장·판매하는 데에는 탱커, 파이프라인, 탱크, 주유시설등 거액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석유산업이 사상최대의 산업자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액체위험물이라고 하는 石油의 물리적 性狀 때문이다.

유명한 石油경제학자인 美國 MIT의 에델만교수는 「石油의 기본원리는 수요에 대한 가격탄성치가 낮고, 공급에 대한 가격탄성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간단히 결론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石油수급은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비재나 자본재는 가격이 내릴 경우 추가수요가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액체위험물인 석유는 사서 저장하기도 불편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성격의 상품도 아니다.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소비에는 크게 떨어졌으나, 이는 에너지절약투자와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이 진전된 결과로서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다.

공급측면에서 보아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간단히 땅속에 있는 원유를 발견, 생산해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석유가격이 4배 이상 상승한 직후에도 공급은 간단히 늘어지지 않았다. 공급에 대한 가격탄성치도 낮다.

(2) 巨大産業資本과 고정비

땅속이나 바다밑의 석유자원을 탐사하여 이를 끌어 올리는 데에는 큰 리스크와 오랜 시간 그리고 자본이 소요

된다. 탐광보다 리스크는 적다고 하지만, 石油을 수송·저장·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도 거액이다. 거액의 장기투자는 필연적으로 상각, 금리, 조세공과등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증가시킨다.

반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일단 완성된 시설을 움직이는 운전경비는 고정비에 비해 미미하다. 즉 석유산업의 회계상의 특징은 변동비에 대해 고정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석유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최후의 10배럴」이란 말이 있다. 유전에서든 정제시설에서도 운전을 멈추기 직전에 나오는 10배럴의 원유나 석유제품은 변동비는 거의 들지 않지만, 이를 換金할 경우 약간의 고정비는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증산압력은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석유산업은 흔히 과당경쟁체질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높은 고정비부담을 투하자본 회전율의 인상으로 경감시키려고 하는 산업자본의 숙명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連產品의 경제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燈油, 輕油, 重油등 여러가지 석유제품이 나온다. 이것이 連產品이다. 다른 공업제품에는 連產品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경제성, 특히 個個제품코스트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업계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에델만교수는 석유정제란 알라스카의 강모래에서 砂金과 모래를 선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원유는 석유제품의 혼합물로서 정유업은 제조업이라기 보다는 분류업이 된다. 원유에는 코스트는 있으나, 이를 구별하여 얻어진 個個제품의 코스트는 명확하지 않다. 말하자면 알라스카 강모래에 함유된 사금과 모래에는 市價는 있으나, 코스트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

連產品의 예로서 두부를 생각해 보자. 두부, 유부, 비지등은 모두 大豆로 만들어지는데 개개제품에서 코스트가 드는 것은 두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부를 만들 경우 기름값이나 광열비 정도이다. 이를 석유정제에서 보면 휘발유나 윤활유에 들어가는 첨가제가 된다.

두부는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代替品이 없기 때문에 값비싸게 팔리지만, 비지는 다른 사료가격 이상으로 비싸게는 팔리지 않는다. 重油가 대체연료가격 이상으로 비

싸게 팔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두부가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大豆에서 두부만을 만들 수는 없다. 연산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싸게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송비나 판매촉진비를 들이지 않고 가게에서 대량으로 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총매출액에서 大豆의 구입비, 광열비, 인건비, 기타 총코스트를 처리한다. 석유정제에서도 그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3. 需要와 供給

석유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즉 값이 내린다고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반대로 값이 오른다고 해서 간단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성질의 상품이 한번 공급과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말부터 금년봄에 걸쳐 현실로 나타난 바와 같이, 추가공급분은 추가수요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은 폭락한다.

(1) 폭등과 폭락의 반복

석유산업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면 투하자본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다음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또 다시 석유부족상태를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고정비는 투하자본회전율의 인상, 즉 기존시설의 가동 유행상과 매출증가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으나, 누군가가 이를 행할 경우 가격이 폭락해 투자의 元本회수는 더욱 어렵게 된다.

美國에서 근대석유산업이 시작된 것은 1859년. 그 이후 석유의 역사는 여러가지 말로 표현되어 왔다. 「과잉과 과소」 「폭등과 폭락의 역사」, 「과잉과의 싸움의 역사」, 「경쟁제한의 역사」 등등...

19세기 이후 美國에서는 신규유전이 개발되면 당장에 원유시장은 과잉상태를 가져와 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투자는 침체하고 시장에서는 과소상태가 되어 가격은 폭등했다. 1920년대말 국제石油카르텔이 결성될 때까지 石油의 역사는 폭등-폭락을 되풀이했다.

세계에서 발견되는 원유의 코스트는 각기 다른데, 경쟁원리가 작용하면 高코스트의 원유는 밀려날 수 밖에 없다.

石油은 그동안 국가의 안전보장에 긴요한 정치상품이

었으며, 경제적으로도 거액의 稅收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원리에 맡겨 高코스트원유를 몰아내는 것은 美國이나 기타 高코스트의 대산유국으로서는 국가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2) 국제石油카르텔

1920년대말 美國과 英國 메이저 3社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제석유카르텔은 주로 석유제품의 가격붕괴 방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석유산업은 드디어 질서를 회복했다.

美國系 메이저에 의해 中東에서 大유전이 잇따라 발견되었고, 코스트가 저렴한 대량의 中東 원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과잉상태를 가져오지 않은채 高코스트원유와 併存시키면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다.

소비지정제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후 서방제국의 경제부흥을 촉진시킨다는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구조는 엄격하게 생산을 통제하는 中東 원유를 美國 동해안까지 운반하여 美國 원유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이른바 擬制된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즉 앞으로의 안정공급을 확보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한 생산통제와 코스트와 관계가 없는 가격체계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지난 70년대 이후 메이저로부터 OPEC(石油輸出國機構)로 주권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보인 주권탈환의 수단은 利權의 국유화, 주권유지의 수단은 생산감축이라고 하는 시장원리의 수정이었다.

리비아의 생산감축명령, 제4차 中東 전쟁때의 OAPEC(아랍石油수출국기구)의 생산감축, 이란혁명, 이란·이라크전쟁에 의한 생산축소, 생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인 사우디아라비아의 減産 등 대폭적인 가격인상과 가격유지는 결국 減産을 통해 실현되었다.

(3) 시장원리의 회복

지난 83년에 나이지리아가 감산을 거부했을 때, 원유가격은 60년의 OPEC 발족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또 지난해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단독감산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표명했을 때 原油는 1920년대말 이후 반세기만에 시장원리의 일부를 회복했다. 그 결과 高코스트 低생산성의 美國의 零細井들은 폐쇄할 수 밖에 없게 되

었다.

美國과 英國 수뇌들은 원유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부시美 부통령과 헤링톤 에너지장관은 시장원리의 수정, 公的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늘날 석유가 세계경제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 국제금융시스템, 동서·남북관계등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과제에 대해 시장원리만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4. 石油소비의 감퇴

(1) OPEC 카르텔

보통 국제상품협정에서는 상품가격支持의 수단으로서 생산조정과 원충비축이 있다. 수수나 고무카르텔에서는 소비국도 참가하여 잉여물자를 사들인다. 이에 대해 OPEC 카르텔은 생산자만의 카르텔인데다가 石油은 유한자원으로 부족이 당연시되고 있어 소비국들은 비축을 서둘렀다.

게다가 70년대에는 인플레이와 달러貨 가치하락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OPEC는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貨 보다 石油이라고 하는 富를 지하에 축적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소비국들의 경쟁적인 구매를 유발했다.

70년대에 OPEC가 사상 최강의 카르텔로 일컬어진 이유는 이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었으며, 여기에 타격을 가한 것이 석유소비의 감퇴였다. 석유소비의 감퇴를 가져온 3대 요인으로는 에너지源의 전환, 산업구조의 개편, 소비절약의 추진등을 들 수 있다.

(2) 代替에너지이용의 확대

다음 도표는 제1차 석유위기 이전과 현재의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신장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日本 등 선진5개국은 제1차 석유위기 이전에 비해 총에너지는 20~30%, 석유는 30~45%나 소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석유소비가 줄어든 것은 代替에너지의 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주요국의 에너지구성비를 살펴보자.

지난 84년 세계의 총석유소비는 28억4천4백50 만톤으로 거의 제1차 석유위기 당시의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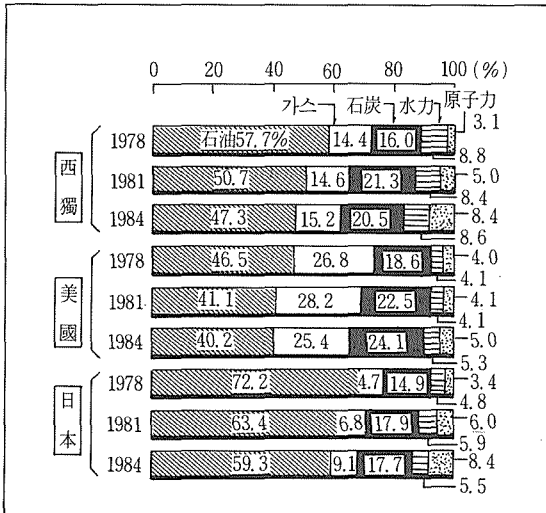
선진 5 개국의 에너지 소비추이(1972~1983)

(단위 : %)

	에너지消費/GDP 減小率	石油消費/GDP 減小率
美 國	-30.0	-31.4
日 本	-31.8	-42.2
西 獨	-20.0	-30.0
英 國	-27.6	-45.8
프 랑 스	-28.6	-40.0

(OECD統計, 유엔統計)

主要國의 에너지 構成比 推移



극단적인 例로서는 日本의 경우 84년의 소비량이 71년 수준까지 감소한 점이다. 이것은 天然가스, 석탄, 원자력등으로의 전환이 크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日本의 경우, 80년부터 83년 사이에 B-C油 수요는 원유환산으로 1천6백50만kl 감소했다.

石油가격이 상승하여, 다른 연료와의 가격차가 접근되거나 역전되면 代替가 시작된다. OPEC는 그동안 석유 부족과 위기의 심각화를 선전해 왔기 때문에 소비국들은 처음부터 석유구입에 열을 올리면서도 산업구조의 개편과 소비원단위의 개선으로 석유제약을 약화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OPEC 의존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최근에 보는 바와같이, 원유가격이 폭락해도가격이 폭락하면 머지 않아 다시 폭등이 온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石油로 다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국들은 이제 가격 이외의 요소, 즉 공급의 안정성, 청결성, 비축不要등을 선택하게 되었다. 기업도 70년대에 말뚝을 피웠던 OPEC에 다시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3) 높아가는 原子力비중

제1차 석유위기 이후 11년간 제조업이 사용한 에너지의 가중평균가격은 5.6배나 상승했다. 인건비 2.2배, 기타원료가격 2.3배 상승에 비하면,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부담이 커서 이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지난 73년 이후 10년간 日本의 에너지 자급율은 10.6%에서 17.2%로 크게 향상되었는데 그 배경이 원자력 발전의 증가였다.

산업구조의 重厚長大에서 輕薄短小로의 전환, 경제의 서비스화를 반영, 산업용 에너지구조는 점차 電力의존형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발전용 연료도 石油火力에서 LNG(액화천연가스), 原子力중심으로 바뀌어 OPEC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석유는 원래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낮은 상품이지만, 지난 72년 이후 82년의 피크시까지 명목으로 26배, 美國의 GNP 디플레이터로 조정된 실질베이스로는 12배나 상승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탄성치가 높아져 왔다. 이것은 제1차 석유위기 직후와 같은 정성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투자와 기술혁신이 제2차 석유위기 이후 급속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4) 에너지절약의 진전

지난 5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에 걸친 고도성장기때 日本에서는 경제성장 1%를 달성하는데에 석유소비가 1%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 즉 GNP에 대한 석유의 탄성치가 1 이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석유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산업구조는 중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당시와 같은 석유계약하에서는 경제성장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日本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 11년간 GNP는 연평균 3.9%의 성장을 보인데 대해 최종에너지 소비신장율은 연평균 0.0%를 기록함으로써 에너지자급 없이도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실증했다.

제 1차 석유위기 이전인 72년부터 75년 사이에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소비 탄성치는 0.67, 석유소비탄성치는 0.45인데 비해 제 2차 석유위기가 발생한 79년부터 84년 사이에는 각각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0.93까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에너지가격상승으로 에너지多消費産業인 소재산업의 부가가치액이 낮았던 부분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가공·조립산업, 즉 전기기계, 수송기기, 정밀기계등의 부가가치액의 신장으로 메꾸으로써 실현되었다. 그 동안의 제조업의 부가가치액은 연율로 6.2%의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다.

투입에너지 1단위가 산출해내는 부가가치액을 에너지生産性이라고 한다. 가공·조립산업인 기계산업의 에너지생산성은 소재산업의 그것에 비해 70~80배나 높다.

다시 말하면, 기계산업은 소재산업이 소비하는 量の 7분의 1에서 8분의 1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소재산업과 같은 부가가치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에너지제약을 극복한 것이다.

(5) 消費原單位의 향상

산업용 에너지소비량은 생산액에 단위생산활동당 에너지소비원단위를 곱한 것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산업용 에너지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생산활동이 정체되는 한편 個個산업내에서 소비원단위의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에서는 오일리스제철방식을 촉진하고, 가스발생을 증가시켜 熱源으로 이용하고 있다. 알루미늄산업에서는 보일러나 열교환기기의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폐열을 이용하는등 개별산업이나 기업의 소비원단위의 향상이 全산업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고 있다.

84년 日本 제조업의 광공업생산지수당 에너지소비량은 83년에 비해 약 40%나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업 25%, 요업 30%, 紙·펄프 35%, 화학 50%나 원단위가 향상되었다.

(6) 在庫의 副作用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축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원유의 수요증가, 재고를 한다는 것은 수요감소를 의미한다.

앞으로 공급부족, 가격상승이 예상되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윤동기 때문에 재고투자를 하게 된다. 반대로 가격이 약세일 때는 비쌀 때 사들인 재고를 방출하기 때문에 수요감소를 가속화시킨다.

재고에는 생산자가 가진 1차재고 외에 유통업자의 2차재고, 소비자의 3차재고가 있다. 2차, 3차재고를 합치면 대체로 1차재고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전세계적으로는 소비의 거의 1백80日分の 재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원유시황이 급변하여 1백80日分の 재고를 2개월 간에 100% 늘린다면 60일에 18日分, 즉 단기적으로는 30%의 수요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수급이 팽박해질 때에는 市況에 패닉효과가 생긴다. 원래 재고는 市況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때로는 엉뚱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73년의 제1차 석유위기, 79년의 제2차 석유위기는 1년 베이스로 재고방출이 이루어진 72년, 78년 직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대로 지난 83~84년의 공급과잉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이 밝힌바와 같이, 순잔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하루 2백만배럴 정도의 재고방출이 이루어져 현물시장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공급과잉감을 증폭시켰다. 재고측면에서 보더라도 石油은 과다와 과소를 반복하고 있다.

5. 非OPEC産油國의 대두

(1) 신장되는 新産油國

제1차 석유위기가 일어났던 지난 73년 OPEC (石油輸出國機構)는 전세계 산유량의 56.1%, 자유세계 산유량의 67.4%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후 77년을 피크로 OPEC의 산유량은 계속 감소, 82년부터는 자유세계의 非OPEC 제국의 산유량을 밀돌게 되었다.

또 85년에는 전세계중의 생산세어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 85년말 시장점유율 회복을 선언하고 32.6%까지 세어를 올린 것도 따지고 보면 원유가격폭락이라고 하는 값비싼 댓가를 지불한 결과였다.

OPEC의 퇴조와는 대조적으로 非OPEC 산유국과 共産圏산유국의 세어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팔복할만한 신장세를 보인 것은 北海유전을 가진 英國과

노르웨이이다. 특히 73년에 산유량이 거의 全無하던 英國은 75년 北海에서 처음으로 원유를 생산, 산유국으로 등장한 이후, 산유량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日産 2 백 50만배럴 수준으로 中共, 이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제5위의 大산유국으로 부상했다.

역시 73년에 산유량이 全無하다시피 하던 노르웨이도 현재는 日産 90만배럴의 산유국으로 등장했다.

北海 이외에 멕시코가 있다. 73년의 日産 47만배럴에서 지난 해에는 한때 2백80만배럴을 넘는 大산유국으로 등장했다. 이집트도 지난 12년 사이에 산유량이 5.3배 증가했다. 中共, 소련등 共產圈도 착실히 산유량을 늘려가고 있다.

(2) 非OPEC대두의 배경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는 정치·경제의 안전보장상의 필요 때문이다.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제4차中東전쟁, 이란혁명과 中東의 정치분쟁에서 발단되었다. 그후에도 이란·이라크戰爭이 장기화되고, 나이지리아는 정변이 빈발하고 있다. 또 OPEC는 상황변동의 원칙을 적용하여 메이저와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利權의 국유화를 단행함으로써 선진국의 「OPEC 이탈」을 조장했다.

둘째는 地主와 산업자본의 발상의 차이이다. OPEC는 이권을 부여한 회사로부터 조세를 받는다. 이는 소작인으로부터 地代를 받는 地主의 입장과 같다. 이에 대해 석

유산업은 산업자본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비용의 회수를 꾀할 수 밖에 없다. 地代의 지나친 변경은 투자계획을 망친다.

세째는 석유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石油는 원래 가격탄력성이 낮은 상품이였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까지 채산성이 없던 대륙붕, 원격지, 소규모 유전의 개발과 2차회수등의 투자가 채산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높아졌다.

네째, 석유산업의 이익이 상류부문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유가격의 상승, 산업구조의 개편, 에너지原單位の 향상등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제품가격은 석유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약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원유가격은 OPEC 카르텔과 사우디아라비아의 自主的 減産등에 의해 下方硬直을 계속해 옴으로써 석유산업의 수익구조는 하류부문의 적자를 상류부문의 흑자로 메꾸는 형태가 계속되었다.

다섯째는 메이저등의 투자가 상류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85년 엑슨의 총투자액은 1백8억달러로 이중 70%가 상류부문에 투자되었다. 이는 메이저가 OPEC의 국유화초치로 잃어버린 이권을 안전성,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美國등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3) 개발에 유리한 稅制

이밖에도 非OPEC 산유국의 시장점유율이 증대된 원인에는 이들 제국의 稅制를 들 수 있다. 석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에 유리한 稅制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美國은 석유개발투자에 갖가지 稅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北海에서는 투자세공제 외에 原油가격변동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을 통한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멕시코, 北海, 美國産 원유등은 대소비지에 가까운 지리적 利點과 OPEC에 비해 非OPEC 제국 쪽이 자금조달면에서 용이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共產圈은 외화획득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산유량 증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6. 非OPEC原油

非OPEC 원유의 대폭적인 伸張은 때로는 종래의 원유

主要國의 산유량추이

(단위 : 천B/D)

	1973	1985
O P E C	30, 883 (56. 1)	16, 011 (30. 0)
美 國	9, 189 (16. 7)	8, 878 (16. 6)
英 國	2 (0. 0)	2, 532 (4. 7)
노르웨이	32 (0. 1)	784 (1. 5)
멕시코	465 (0. 8)	2, 734 (5. 1)
이집트	165 (0. 3)	875 (1. 6)
自由世界計	45, 795 (83. 2)	38, 542 (72. 2)
中共	860 (1. 6)	2, 496 (4. 7)
소련	7, 975 (14. 5)	11, 900 (22. 3)
共產圈計	9, 249 (16. 8)	14, 849 (27. 8)
世界合計	55, 044	53, 391

(註) 괄호안은 구성비(%)

거래의 관념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세계원유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歐美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英國 北海産 원유에 관한 稅制는 원유가격이 변동해도 판매량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다. 가격이 올라 비싸게 팔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반대로 싸게라도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에 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부도 北海원유에서 稅收를 늘릴 수가 있다.

외환부족으로 허덕이는 소련이나 이집트도 市況에 맞추면서 유연한 가격정책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1) 現物市場의 발달

한쪽에서 OPEC 산유국들이 생산량 할당과 감산으로 가격유지를 도모하는 동안 非OPEC 산유국들은 全面 생산된 원유를 탄력적인 가격으로 판매했다. 이것은 原油의 高價와 석유제품의 低價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회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시장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종전까지 원유는 주로 메이저와의 장기공급계약, 石油이권의 국유화 이후에는 OPEC 산유국과의 직접거래(D-D)계약을 통해 정유회사에 공급해 왔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물거래비중이 점차 높아져 현재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전체수입량 약 1천5백만 B/D 중 20%인 3백만B/D는 현물거래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北海에 가까운 北西유럽의 현물원유도입비중은 35~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물시장 기능의 확대로 그동안 국제원유가격의 指標였던 아라비아라이트의 공식판매가격이 有名無實해지면서 뉴욕原油先物시장에 上場하고 있는 WTI(美國西部텍사스産中質油)가 새로운 국제指標 원유로 등장했다.

(2) 수송거리의 단축

석유제품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 계약후 수입, 정제하여 제품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원유로는 제품가격의 변동에 기동성있게 대응할 수 없다. 페르시아에서 北西유럽으로 원유를 수송, 정제하여 제품으로 생산하기까지에는 보통 95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北海원유로 바꿀 경우 48일이면 된다.

소련원유나 이집트원유도 가격정책 외에 거리의 측면

에서 中東원유보다 매력이 크다. 美國의 경우 멕시코원유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원유나 베네수엘라 원유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같은 非OPEC 원유의 시장 점유율 확대는 세계 원유의 수송거리를 단축시켰다.

北海원유는 美國의 수요구조에도 적합하다. 美國産원유에 비해 운임과 관세차이 이상으로 값이 쌀 경우, 大西양을 건너 美國에도 흘러 들어온다. 반대로 美國産 휘발유가 유럽보다 싸게 되면 유럽으로 이동한다. 이와같이 北西유럽과 美國동해안은 서로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中東산유국으로부터 독립된 大西양석유시장을 형성해 왔다.

이에 대해 세계 3대석유시장의 하나인 極東지역은 지리적인 이유와 다른 代替供給源이 없기 때문에 中東의존으로부터의 탈피는 간단하지 않다.

大西양圈, 특히 西半球는 中東의존에서 벗어나 石炭, 天然가스, 原子力을 포함한 域內에너지 자급체제를 강화하는데 대해 극동은 中東의존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일화되었던 국제원유시장은 점차 수에즈를 경계로 2元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에즈以西의 석유시장은 美國의 先物과 北海의 현물가격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제품가격과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수에즈以東의 시장은 大西양시장 만큼 제품가격이나 현물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石油貿易의 축소

세계적으로 원유수요가 감퇴하는 가운데 석유회사의 원유선택의 우선순위는 ① 自社개발 원유, ② 가격정책이 유연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非OPEC 원유, ③ 저렴한 현물원유, ④ 마지막으로 OPEC 원유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OPEC는 최후의 調整弁으로서의 균형공급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최근 OPEC가 減産후 價格支持役을 하다가 결국 석유收入의 감소를 가져온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大소비국의 에너지자급노력, 원유선택순위의 변화, 大西양시장의 中東이탈추세는 세계석유무역량을 석유수요 감퇴 이상으로 감소시켰다. 즉 세계석유무역량은 79년에 세계 전체무역량의 49.4%에서 84년에는 35.2%로 감소했다.

84년의 세계의 4개루트別 석유이동량을 79년을 100

로 잡아 살펴보면 中東-西歐 35, 中東-日本 69, 中南
美-美國 88, 中東-美國 29로서 中東에서 수에즈 以西
로의 무역이 격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탱커수요
도 크게 감소했다.

7. 原油去來의 형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세계원유무역의 형태를
原油지배자의 변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 보면, 第1期는
메이저지배시대, 第2期는 OPEC (石油輸出國機構) 시대,
第3期는 시장경쟁원리의 지배시대로 나눌 수 있다.

(1) 메이저支配時代(1950~1973)

엑센, 모빌등 이른바 7자매로 불리워지는 메이저(국
제석유자본)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원유의 75%인 3천
만B/D를 利權을 가진 산유국으로부터 넘겨 받아 지배
했다. 이중 2천3백만B/D는 전세계의 계열정유회사
에 인도했다. 이것이 메이저에 의한 系列內거래이며, 나머
지 7백만B/D의 원유는 제 3자에 장기계약으로 판매
했다.

(2) OPEC 支配時代(1974~1980)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OPEC 지배를 향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前期(1974~1978)와 지배권을 확립한 後期
(1979~1980)로 나눌 수 있다.

前期에서는 제 1차 석유위기에 의해 산유국의 사업참
가와 국유화가 진행된 결과 OPEC가 가격결정권을 장
악하는 한편 처분할 수 있는 원유의 비율을 늘려 갔다.
그러나 메이저는 거래코스트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판매력을 보유하여 OPEC도 메이저에 판
매를 위탁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유의 거래형태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
러나 메이저의 처분가능량은 약 7백만배럴 정도 감소함
으로써 非계열회사중에는 산유국과의 직접거래(D-D)
를 하게 되었고, 장기안정공급을 희망하는 소비국정부중
에는 정부간계약(G-G)을 체결하는 나라도 있었다.

後期는 79년 이란혁명이 계기가 되었다. OPEC 산유
국들은 메이저와의 원유장기계약을 파기하고 직접거래에
나섰다. 메이저도 제 3자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거나 대
폭 삭감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원유부족에 혼란 제 3

자와 일부 메이저는 다투어 산유국과 D-D 거래를 확대
했고, 또 일부소비국은 G-G 계약을 서둘러 바야흐로 D
-D, G-G 전성시대를 맞았다.

세계에는 인구는 적으나 石油收入이 많은 사우디아라
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원유는 구입
하고 싶으나 입수하기 어렵거나 지불능력이 부족한 나라
나 기업이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등장한 것이 D-D나 G-G의 變形인 바터거래나
인센티브原油이다.

바터거래는 산유국이 원유판매의 댓가로 무기, 기술, 노
동력등을 소비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래형식이다. 인센티
브원유는 산유국이 경제건설이나 경제협력에 이바지한 나
라나 기업에 대해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
는 원유이다.

(3) 市場경쟁원리의 지배시대(1981년 이후)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가 대폭 감퇴하는 가운
데 원유가격의 상승과 석유제품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
다. 석유회사들은 OPEC와의 장기계약을 서서히 가격
면에서 유리한 현물계약으로 대체했다. OPEC의 생산
조정 한도외인 非OPEC 산유국은 유연한 가격정책으로
원유를 현물시장에 내보냈다.

79년에 세계원유거래량의 1~2%에 불과하던 현물시
장은 82년초에는 6%, 85년에는 OECD 제국의 20%, 北
서유럽에서는 35~40% 규모로 확대되었다.

85년 후반부터는 이른바 네트백판매방식이 등장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의 직접수요자인 정유회사들
이 원유와 제품의 逆마진으로 시달리고 있는한 원유거래
는 늘어날 수 없다는데 착안하여 이 방식을 창안해 냈
다. 최근 나이지리아도 네트백방식을 채택했다.

네트백판매방식이란 석유제품가격에서 逆算하여 정유
회사에 배럴당 약 2%의 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원
유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거래형태는 일종의 D-D 거래이지만, OPEC가 처음
으로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거래상
대국에 따라 원유판매가격에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O P
E C의 공식판매가격을 유명무실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쟁원리가 OPEC를 굴복시킨 점과 획기적인 거래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고정가격에 의한 장기계약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생겨난 스파트거래조차 단기간의 제품가격변동의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이를 헷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先物市場이다.

原油先物市場은 83년에 뉴욕에서 개설되었는데, 여기에 上場되고 있는 WTI(美國西部텍사스産中質油)는 44만B/D에 불과하지만, 이 시장에서의 실제거래량은 連日 3천만배럴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전세계원유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先物市場이 확대되는 것은 가격변동의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데다가 실질고금리시대에 적은 자금으로 거래할 수 있고, 가격형성이 누구의 눈에도 쉽게 알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이나 市況상품과의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등의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8. 石油와 政治

石油은 그동안 政治商品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戰後에도 1956년 수에즈분쟁때 英仏 양국은 中東의 석유확보를 위해 수에즈에 파병했다.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의 직접원인은 각각 제 4차 中東전쟁, 이란혁명이 그 시발점을 이루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석유는 전쟁이라고 하는 최고도의 정치적 사건에 자주 영향을 미쳐 왔다.

(1) 發言權 강화되는 第3世界

OPEC(石油輸出國機構)가 회원국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석유의 정치성을 최고로 발휘한 것은 제 1차 석유위기때였다. OAPEC(아랍石油輸出國機構)의 減産, 美國과 네덜란드에 대한 石油禁輸는 서방선진국에 일대 石油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후 산유국들의 행동은 정치적 색채를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다. 資源가격인상과 선진국과의 격차시정을 추구하는 제 3세계는 OPEC를 선두로, 74년에는 자원, 식량, 인구등 제 3세계에 관한 一連의 회의를 통해 발언권을 강화했다.

그리하여 제 3세계의 정치적 결속의 집대성으로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아라파트의장의 유엔초청에 성공했다. 원유가격의 4배 인상을 실현한 제 4차 中東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은 아랍大義의 기치와 단결의 상

징이었다.

그러나 75년 이후 지나치게 상승한 원유가격은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1차產品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원유가격의 약세가 시작되었다. 제 3세계의 정치적 이상은 경제원칙에 눌러 그들은 점차 OPEC에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2) 아랍내부의 분열

아랍산유국들의 정치적 지위는 아랍의 宿敵 페르샤(이란)와 유대(이스라엘)의 도전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79년의 이란혁명은 이란의 급격한 西歐化에 대한 반동과 회교원리주의에의 복귀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혁명의 침투에 두려움을 느낀 페르샤灣岸의 6개 산유국들은 페르샤灣岸협력기구를 결성하여 아랍내에서 불력을 형성했다.

또 아랍의 리더였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아랍의 外緣에 위치하는 회교국까지 포함한 大아랍主義를 제창했으나, 그 이상은 이란의 도전으로 동쪽으로의 발전을 저지당했다. 또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온 페르샤灣岸산유국들은 아랍大義보다도 스스로의 안보를 다지는 지역동맹의 길을 선택했다.

지난 80년부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란·이라크전쟁에서도 아랍세계는 이라크지원을 둘러싸고 분열상을 나타내 이스라엘과 무력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시리아와 리비아는 이란측을 지원하는 기묘한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이란에서 동쪽으로의 발전을 저지당한 아랍은 이스라엘에 의해 수에즈 以東과 北西로 분열되고 말았다. 즉 78년에 美國의 중재로 수에즈운하의 재개라는 경제적 댓가를 받고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아랍진영에서 최대의 인구와 육군을 보유하고 이스라엘과 인접한 이집트의 참가 없이는 아랍이 이스라엘과 무력대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유일한 拮抗세력인 시리아는 아랍으로부터의 자금지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지원축소로 외화가 줄어들어 전쟁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PLO도 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으로 레바논에서 쫓겨나 튀니지등 아랍 5개국에 분산되고 말았다.

게다가 작년 9월 일련의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테러 때문에 지난해 10월 유엔 40주년기념총회에 아라파트의장은 초청되지 않았다. 또 아랍단결의 상징이었던 팔레스

타인도 국제여론과 아랍산유국의 石油收入 격감이라는 현실앞에서 지원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공군은 키프러스섬에서의 이스라엘인 살해, 기타 일련의 팔레스타인인에 의한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멀리 PLO 본부가 있는 튀니스까지 폭격했다. 소아랍은 이스라엘의 제공권하에 있으며, 어떠한 테러행위도 용납치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행동이었다.

(3) 市場경쟁원리의 회복

지난 봄 美國은 美國人에 대한 테러행위에 보복하여 리비아 수도를 폭격했다. 美國과 이스라엘공군이 아랍국가를 직접 공격했는데도 아랍진영은 아무런 보복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石油의 정치색은 퇴색한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은 『제2차 석유위기때의 원유가격 인상은 실패였다』고 솔회했다. 정치적으로 인상된 원유가격은 결국 시장경쟁원리에 굴복하고만 것이다.

9. 石油의 一般商品化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세계원유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① 현물시장·先物市場의 기능확대
- ② 원유의 네트백방식 판매의 증가
- ③ 에너지의 지역자급율의 증대
- ④ 세계원유시장의 分極化
- ⑤ 원유의 정치색의 퇴색

이와 같은 경향을 토대로 원유를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20년대말의 국제석유카르텔 결성 이후 반세기만에 일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石油가 정치상품에서 시장상품으로, 특수상품에서 일반상품으로, 또 금융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1) 特殊商品

원유와 석유제품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되풀이하는 가운데서 寡占체제를 구축해 온 세계석유산업은 1920년대말 국제石油카르텔을 형성하여 경쟁원리, 시장법칙을 배제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과 中東전쟁 등으로 정치성이 가미되어 과거 반세기 이상에 걸쳐 石油는 다음과 같은 특수상품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

● 코스트差를 무시한 비경쟁원리

코스트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美國産원유와 中東원유의 共存을 가능케 하기 위해 中東원유의 공시가격을 美國도착시점에서 美國産원유와 대등하게 설정했다. 또 中東원유의 생산은 카르텔을 통해 엄격히 통제했다. 이와같은 시스템에서는 코스트가 저렴한 中東원유의 생산에는 당연히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여기에 정치가격이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시장원리는 더욱 작용할 수 없게 되었다.

● 왜곡된 수익구조

세계 원유가격은 코스트가 높은 美國의 유전을 수호하기 위해 제품가격과는 관계없이 결정되었다. 세계 석유산업은 상류부문의 초과이윤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 하류부문의 적자를 메꾸었다. 원유시장에서 제품가격이 원료의 생산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통하지 않았다.

● 上向性 시장기능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때 OPEC는 스파트시장의 제품가격의 급등에 맞추어 원유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수요감퇴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원유가격은 쉽게 내리지 않는 下方硬直性을 갖고 있다.

● 헛기능을 갖지 못한 수요자

원유공급자(생산자)가 지는 리스크는 장기판매계약기간중에 원유가 급등하는 경우 아무런 손해가 없으나, 수요자는 제품가격의 하락, 공급자가 발동하는 불가항력조항이나 조건변경원칙에 의한 공급삭감, 가격조정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헛지하는 기능이 과거 원유시장에서는 충분치 못했다.

반세기나 계속되어온 시스템에 모순이 드러남으로써 최근 10년간 국제원유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2) 경쟁원리의 도입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증대는 현물시장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원유시장에도 일부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근거리원유인 北海원유의 연쇄거래는 일부 채무불이행으로 거래체인이 단절되는 위험은 있으나, 제품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헛지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제품과 원유의 선물시장의 발달로 원료가격결정의 최대요소는 제품市況이라고 하는, 일반상품에서는 당연한 이치가 처음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원유는 이제 일반상품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다.

(3) 金融商品의 성격

산유국측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나타난 것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작한 네트백판 매방식이다.

생산과 가격의 결정메커니즘이 시장원리에 맡겨져 거래가 다수참가하는 공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原油의 일 반상품화가 실현되었다. 한결음 더 나아가 금융상품으로 서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원유가격의 하락은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에 따라 금리수준도 내렸다. 금리하락은 주식, 채권등 세 계금융상품시세를 크게 변동시키게 되었다. 또 원유거래 는 현물상품으로는 최대의 상품이었으나, 현재는 뉴욕의 선물시장을 합해도 원유가 움직이는 자금량은 시카고 價 權 선물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금융상품의 현물이나 선물에 미치 는 영향을 생각하면 원유의 물동량이 줄어들어도, 또 가 격이 하락해도 수익기회는 다른 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원유는 이제 금융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10. OPEC의 고민

한때 史上최강의 카르텔로 일컬어지던 OPEC (石油輸 出國機構)도 세계석유시장을 엄습한 변혁의 물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OPEC는 70년대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나타난 80년대의 과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OPEC는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왔다. 70년대에 세계적인 인플레이의 원흉으로 일컬어졌던 OPE C로서 가장 곤란한 과제는 세계경제의 디스인플레이 내지 는 디플레에 대한 대응이다.

(1) 디플레의 對應

70년대는 원유가격 폭등으로 파생된 인플레이를 진정시 키기 위해 명목금리가 크게 인상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 률은 금리수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금리는 낮아 지거나 때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수도 있었다.

게다가 달러貨약세가 지속되면서 환물심리가 크게 작용 해 OPEC는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貨보다 가치가 상승

하는 「지하의 石油」를 선호했다. 이것이 원유가격의 상 승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는 70년대와는 반대로 인플레이진정, 美國의 실질高금리, 달러貨강세, 성장 율의 둔화, 원유수요의 격감과 같은 디스인플레이, 디플레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달러貨가치가 상승한 82년 이후 석유수요 감소로 OPEC 전체는 경상 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2) 經常収支적자

그후 OPEC의 경상수지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5 달러시대가 계속될 경우, 86년의 경 상수지적자는 7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대외자산도 피크를 이루었던 81년의 4천1백억달 러에서 내년말에 가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OPEC의 收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산 이지만, 이것도 80년 이후 일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1國 에 편중되고 있다. 자금여유가 없는 나라가 감산한다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의 감산은 필연적으로 非OPEC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말까 지 減収分을 대외자산의 환수로 메꾸어 왔으나, 앞으로 경 상수지적자가 계속될 경우, 2년후에는 처분가능한 대외자 산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감산을 거부했다.

지난 해 가을 선진5개국 재무상회의 이후 달러貨약세 와 美國금리하락이 진행되는 가운데 OPEC는 원유판매 량의 감소 이상의 실제收入의 감소, 달러貨베이스 수입가 격의 상승, 對外달러자산 운용금리수입의 감소등 3重苦에 허덕이고 있다.

(3) OPEC의 사정

경상수지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융통되지 않으면 안된 다. 70년대 유로시장에서 최대의 채권국이었던 OPEC 는 지난 82년 이후 유로시장과 美國은행예금의 환수를 통 해 융통해 왔다.

앞으로 경상적자의 융통을 유로시장으로부터의 자금회 수로 꾸려갈 경우, OPEC 내부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의 대폭赤字圈인 美國·非산유개발도상국과 자금쟁탈전을 벌 일 가능성이 높다.

OPEC의 감산이 점차 금융문제의 양상을 띠고 있고, 각국의 자금수요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OPEC의 결속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70년대는 石油감산→원유가격 상승→달러貨 하락→減産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는 정반대로 증산→원유가격 하락→OPEC 取入 감소→증산이라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英國은 산유국이라고 하지만, GNP에 대한 원유생산액은 7%에 불과하며, 원유가격이 하락해도 플러스효과도 크다. 그러나 OPEC 제국은 원유가 GNP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유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나, 여기에는 감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OPEC 회원국중에는 석유 이외의 産品의 수출확대를 꾀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이미 70년대에 自國통화의 환율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값싼 외국제품이 유입됨으로써 농업등 고유의 제 1차산업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시키고 말았다. 제 2차산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해도 자금, 기술, 人力, 立地, 시장등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이 적지 않다.

또 「석유 고갈에 대비하여 자원보존과 공업화를 서두를 것」을 주장해온 OPEC이지만, 현재 석유 이외에 富를 생산할 수단이 없다. 지하에 풍부한 석유를 소진시킬 경우 자금이 고갈하는 나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1. 메이저의 對應

(1) 투자의 축소

세계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슨의 84년도 세후 순이익은 55억달러의 좋은 실적을 올렸다. 同社의 가빈會長은 85년 봄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 10여년간 석유위기의 亂氣流에서 벗어나 시련을 극복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장래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어려운 판단력이다.』

그러나 1년도 못가서 엑슨은 4만명의 종업원중 15%에 상당하는 6천명의 종업원의 감축과 투자계획의 축소를 발표했다.

제 2차 석유위기 이후 메이저(國際石油資本)는 美國내에서의 석유개발을 투자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에 수립한 투자계획을 30% 정도 축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작년에 『앞으로 10년간 석유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원유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발표했던 텍사코와 아모코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오히려 수익향상의 轉機로 이용했던 메이저조차 작년말부터 시작된 원유가격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수익악화의 대처방안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원유가격이 배럴당 1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경우 OPEC에서 상실한 값싼 利權원유를, 美國내의 코스트가 비싼 개발원유에 대체시키고, 차입금을 늘려 석유회사를 사들이며, 탈취방지를 위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면서까지 自社株를 매입하는 노력등도 마이너스효과를 갖게 되었다.

메이저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전략은 투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석유위기 이후 투자방침에서 메이저의 변화에 대응해온 메이저의 경영방침을 읽을 수 있다.

(2) 캐시플로우의 급증

제 1차 석유위기는 남북문제, 즉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자원수입국인 선진공업국간의 富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했다. 원유의 경우, 메이저는 전세계에서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OPEC가 원유수입국으로부터 代金を 받기 위해서는 메이저의 병참기능, 다시 말하면 「徵稅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 1차 석유위기 이후에도 2년간은 OPEC와 메이저간의 이익배분은 55대45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에 원유가격 상승은 OPEC 뿐만 아니라, 메이저에도 막대한 富를 가져다 주었다. 원유가격 상승으로 캐시플로우가 급증하자 메이저는 이를 현금예금등의 형태로 보유했다. 본래는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일부는 초과이윤세 등으로 정부에 의해 징수되었는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캐시플로우의 사용방법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지 못했다.

75년 후반부터 산유국들의 사업참가와 국유화가 본격화되면서 메이저는 코스트가 낮은 持分원유를 상실하게 되자 그들은 투자전략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최초의 선택이 중핵자원·에너지회사 및 兼業부문 진출을 위한 투자였다.

(3) 經營多角化의 실패

자원·에너지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메이저는 급증하는 캐시플로우를 石炭, 오일셀, 타르샌드등의 에너지자원이나 비철금속등의 광물자원의 획득 및 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수요감소로 비철금속가격이 하락한데다 代替에너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발코스트가 급등하고, 석탄을 제외하고는 실용화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 그 주요이유이다.

자원·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이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것은 사업다각화에 대한 투자였다.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석유수요가 떨어지고 특히 탱커와 정제설비, 주유소등의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석유회사의 신규부문진출을 보면, 걸프의 서커스, 모빌의 소매업 및 포장회사, 엑슨의 사무기기 및 전기회사의 매입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부문의 사업도 결국 실패로 끝나 상각이나 상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각화노선은 개별기업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보다 큰 문제, 즉 空前의 기업합병분과 그후의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져 왔는데, 당시 이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 투자전략의 전환

제 2차 석유위기로 원유가격이 급등하자 OPEC (石油輸出國機構)는 직접 소비국에 원유판매에 나섰다. 이에 따라 메이저는 가장 가치있는 자산은 원유자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투자방침도 종래의 다각화에서 OPEC에게 상실된 석유자원의 置換으로 전환했다. 置換의 대상은 미개발 석유자원량이 풍부하고 대소비지에 인접해 있으며, 세계에서 우대조치가 많은 美國과 北海유전을 갖고 있는 英國이 중심이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美國과 英國에서는 원유개발이 붐을 이루었다.

81년 원유가격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인플레이션도 피크를 지나면서 美國의 금리 상승세도 일단 주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하락만큼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실질금리는 사상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달러貨의 실질금리가 오르면 달러貨의 투자가치도 상승하고 달러가격도 상

승한다. 달러貨의 상승세는 美國의 경상수지적자를 확대했다. 실질금리의 高수준하에서 석유수요는 감퇴하고 또 주식시장을 압박했다.

메이저는 이미 70년대에 다각화의 실패로 유류자산과 불량자산을 안게 되었는데 석유수요감퇴로 수송과 정제, 판매시설의 유휴화가 늘어나면서 원유와 같은 가치가 높은 실질자산이 있어도 그것은 株價에 正으로 반영되지 않고 말았다. 株價가 약세를 보인 83년 당시 石油株는 석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산의 4분의 3 정도의 가치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企業買収

여기에 눈을 돌린 것은 「기업습격자」에 의한 일련의 株式매입이다. 그들은 石油株가 쌀 때 석유회사를 매입하고, 수익성있는 자산, 즉 원유생산부문만을 남겨 놓으면 株價가 오를 것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石油株를 사모기 시작했다.

지난 83년 여름 텍사스州的 中小석유회사인 메사·피트 롤러업社가 메이저의 一角에서 자기보다 80배나 덩치가 큰 걸프의 株式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84년의 石油株의 대이동의 시발이었다.

기업매수가 가져오는 수수료수입과 資本소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도 「합병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84년에 全 美國의 기업매입건수는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석유산업의 경우, 소칼의 걸프 매입(1백32억 달러), 텍사코의 케티오일 매입(1백1억달러), 로알더치 셀에 의한 셀오일(美國)의 완전子會社化(52억달러)등 1년 사이에 3백억달러 규모의 매입이 이루어졌다.

텍사코가 케티오일의 매입으로 취득한 원유의 평균코스트는 배럴당 4.7달러, 소칼이 걸프매입으로 취득한 그것은 4.4달러인데 78~82년 美國에서의 평균원유 발견코스트 9.6달러와 비교하면 일단, 기업매입은 채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는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성립할 때 가능하다.

(6) 석유산업의 구조개편

경영자가 買入붐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株價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84년께부터 석유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의 경영자원의 재배분과 함께 기업전략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재조정의 중심은 自社株의 매입과 자산의 처분이었다. 수요감퇴가 계속되는 석유산업으로서의 성장에 의해 株價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 自社株를 매입, 상각하여 발행한 총 주식수를 줄이고 거기에 增配하면 주가는 상승하여 주주에게 돌아가는 동시에 기업의 탈취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自社株를 매입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되므로 개선안을 위해 자산의 처분과 은행차입의 상환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메이저가 판매부문을 축소하고 채산성이 없는 지역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 때문이다.

美國내에서의 석유개발과 기업매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차입금을 늘려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원유가격이 급락세를 보임으로써 美國의 석유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는 메이저나 용자해준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태로서 이들의 원유가격支持에 대한 요청은 OPEC 못지 않게 강할 수밖에 없다.

작년 12월까지 원유가격이 堅調勢를 보인 것은 하류부문을 정리하여 몸이 가벼워진 메이저가 감산과 재고축소를 통해 제품가격을 높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OPEC의 감산체제가 붕괴되어 원유가격이 폭락하자 메이저도 우선 지출감축과 사업축소 위에 투자지침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작년말까지 유일의 가치있는 자산과 투자대상이었던 원유자원은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체되어 이를 늘리는 것이 투자의 최대목표가 되고 있다.

12. 消費國의 대응

(1) 石油消費稅의 인상

최근 원유가격이 폭락하자 IEA (국제에너지기구) 21개 회원국중 8개국이 석유소비세를 인상했다. 油價하락이 석유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稅收확보를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 소비국이 원유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다.

원유가격이 하락하자 원유를 사들여 앞으로 가격이 반등하는 것에 대비하여 비축을 늘리는 나라도 있다.

석유수입국들은 지난 70년대에 원유가격 폭등으로 고통을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작년말부터 시작된 원유가격의 급락은 소비국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

나 석유소비국그룹인 IEA가 통일된 견해나 시책확립에 부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소비국들은 원유가격 급락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美國과 日本의 고위당국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원유가격의 안정을 중용하고 油價폭락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소비국측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세기만에 원유에 시장경쟁원리가 되살아나고 일반상품가격도 반세기만에 급락세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국들도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지도 모른다. 현재와 같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한 나라의 불행이 결국 자기 나라에도 파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유는 세계경제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비국으로서도 원유는 싸면 쌀수록 좋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사태는 단순하지 않다.

각국의 대응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2) 産油消費國의 대응

똑같이 北海유전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와 英國의 대응도 대조적이다. 노르웨이에서는 中道우파정권이 원유가격 폭락후 긴축재정과 휘발유세의 인상방안을 내놓았으나, 연립여당의 반대로 붕괴되고 말았다. 선진국에서 석유 때문에 정권이 붕괴된 첫번째 케이스이다.

이에 대신하여 등장한 사회주의 정권은 산유국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하여 통화평가절하를 단행하고 OPEC와 동조하여 산유량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또 英國에 대해서도 생산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英國의 대처수상은 원유가격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노르웨이와 정반대인 純소비국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중간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美國으로 레이건大統領은 석유시장에 대한 不介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부통령과 에너지부장관의 언동이나 발언을 보면 시장원리를 수정하는 뉘앙스이다. 의회에서도 수입원유에 공과금을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휘발유세를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산유국과 소비국의 입장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금리가 내리고 성장율이 올라가 稅收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관세와 초과이윤세(美國), 石油收入稅(英國) 등의 석유諸稅의 稅收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3) 不均衡의 深化

원유가격의 폭락은 선진공업국중에서도 석유수입의존도가 높은 西独이나 日本과 이보다 낮은 美國과 英國 사이에는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 즉 日本과 西独의 무역수지의 흑자폭을 확대시키고 국제불균형을 확대시켜 경제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석유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작년 9월 선진 5개국 재무상회의 이후 협조개입에 원유가격의 대폭 하락이 가세하여 円貨는 단기간에 대폭 상승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수출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품가격이 하락하는등 이른바 円高不況을 초래, 정치문제까지 발전했다.

원유가격 대폭 하락에 의한 최대의 문제는 누적채무국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1천억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는 멕시코이다. 금리가 2%만 내려도 부담감은 연간 20억달러인데 비해 원유수출량 1백50만B/D로 油價가 10달러 내리면 연간 55억달러의 取入이 감소된다. 같은 채무국으로서 산유량이 적은 브라질은 국제수지가 호전되고 있는데 반해 멕시코의 외채는 계속 늘어나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금의 25% 이상을 에너지관련산업에 대출하고 있는 이른바 에너지은행은 全美國에서 3백70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大産油州인 텍사스, 오클라호마州에서는 지난 1년 4개월 사이에 30개의 에너지은행이 도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에너지은행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의 누적채무문제와 함께 세계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문제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13. 맺는말

두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원유정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① 수급조건 변화

에너지소비절약의 진전, 소비원단위의 향상, 산업구조의 전환등으로 石油의 기본원리로 알려졌은 낮은 가격탄력성이 크게 변하고, 선진공업국경제는 石油제약으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② 시장구조의 변화

현물시장, 先物시장의 발달과 네트백原油의 등장으로 買手者は 리스크 헷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이 석유제품가격과 수급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즉 시장원리가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③ 상품성격의 변화

원유는 정치상품·특수상품에서 일반상품, 금융상품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1) 原油의 금융상품화

石油本位制시대로 일컬어지는 지난 70년대에는 우선 물량확보가 정책과 경영의 최우선과제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게 됨으로써 원유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미시적 경제정세 전반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상품이 증권화되어 금융상품으로 변하고 또 이를 취급하는 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발달하면서 石油도 금융상품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경제전반과의 관련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본위제로 일컬어지는 현재, 石油도 역시 정보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원유가격의 변동은 세계의 인플레이, 金利, 환율, 실업, 성장율,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OPEC, 非OPEC 산유국, 석유수입국을 불문하고 각국의 利害는 이전보다 더욱 복잡해졌다. 따라서 각그룹은 통일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2) 시장기능의 한계

이와 같은 상황에서서는 정책당국의 混迷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멕시코나 에너지은행의 역경을 보면, 「神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기능이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베이커 美재무장관과 같이 환율이나 금리 뿐만 아니라, 타국의 경제정책에 까지 공공연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개입론자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시장의 資源최적배분능력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디플레경향중에서 만약 公的 개입으로 원유가격만을 支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70년대의 원유가격이 폭등했을 때 시장기능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개입하지 못한 고민이 美國과 英國등의 원

유가격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규모의 자본을 동원,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매이저도 변전하는 투자전략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70년대에는 인플레이를 전제로 자금을 상품으로 바꾸어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원유투자에 나서기도 했으나, 원유가격 폭락과 세계경제의 디플레이경향은 매이저의 自信을 상실시켰다.

약 1년전 석유위기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하고 석유개발투자를 최우선시책으로 내세웠던 엑슨의 가빈會長이 최근 「원유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은 기업의 투자전략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3) 앞으로의 전망

불확실성을 더해 가는 石油의 新時代에 있어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석유의 고유요소만으로는 석유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제 원유가격의 예측에는 지금까지의 OPEC 원유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급관계 이외에 상품시장에서의 가격형성요소인 케이線이나 先物시장에서의 거래구조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 원유, 금리, 환율의 연동에 착안하여 3개의 變數를 가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에서 活況을 보이고 있는 裁定거래의 발상은 그대로 석유산업의 수익증대책으로서 이용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내의 수직적인 발상을 수평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70년대 원유가격 폭등의 조정에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과 같이, 작년말 이후 원유가격 폭락의 후유증에도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비약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 海外短信 □

아세안 6개국, 석유공급보장협정 체결

ASEAN (東南亞 國家聯合) 6개국은 최근 마닐라에서 개최된 外相會議에서 석유공급 및 소비에 관한 주요 협정을 체결했다. 產油國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非產油國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外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회의에서 체결된 협정은 域内の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시에 석유를 상호 융통하는 「石油供給保障協定」과, 공동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에너지協力協定」으로 되어 있다. ASEAN의 에너지안전보장구상의 제1보라고 할 수 있는 이 협정은 향후 韓國과 日本등 근접 석유수입국의 에너지政策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石油供給保障協定」은 ASEAN 각국이 域内에서 石油를 우선적으로 구입·판매하는 「緊急石油融通計劃」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데 원유나 석유제품이 공급과잉시에 필리핀 등 ASEAN의 석유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등 域内の 產油國이 「통상 수출량의 80%를 확보할 수 있도

록, 가능한 한 이들 국가로부터 石油를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SEAN 회원국중 어느 국가에서 ① 지진 또는 생산시설 폭발 등의 재해 ② 전쟁등의 비상사태에 의해 심각한 석유부족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域内 產油國은 비상사태 발생국 수요량의 80%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급과잉 또는 부족의 어느 경우에도 「緊急石油融通計劃」이 발동되는 기간은 12개월이고 가격은 당사국간의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協力協定」은 ASEAN 각국의 經濟體質強化와 紐帶堅固를 위해 太陽熱, 地熱, 바이오매스 등 새로운 에너지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ASEAN 經濟關係會議의 실무자들이 協定遂行을 위한 諮問委員會 役割을 담당하여 新에너지의 개발, 연구, 기술 이전에서부터 인제양성, 안전관리에 이르는 광범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